

**농림어업 3년연속 뒷길음****양곡자급률 37%로 하락  
91년 농업백서**

지난해 국내 농림어업분야 부가가치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농가가 물건을 사고파는 교역조건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곡자급률은 37.5%로 떨어지고 농가인구중 9%가 1년새 농촌을 등진 것으로 밝혀졌다.

**농가인구 9% 離農…  
가구소득은 늘어**

한편 영세농이 줄어 가구당 경지면적은 90년보다 3% 늘었고, 농가 가구당 소득도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수산부가 지난해의 각종 농업지표를 집계해 8일 발표한 「91년 농업백서」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는 농림어업 부분의 부가가치가 經常가격으로 16조7천억원에 이르러 90년보다 0.8% 줄었으며, 지난 89년 이후 3년째 연속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쌀·보리등 주요작물 생산이 줄고, 어획량이 감소한 탓으로 지난해 국가 전체 GNP(국민총생산)가 8.4% 성장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은 90년보다 8.9% 상승에 그쳤으나 농가의 물자구입비·품삿 등 구입가격지수는 14.4%나 상승,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됐다. 지난해 농가의 구입가격이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한우 송아지 등 농가용품 가격이 16.2% 상승한데다 이농현상으로 농촌품삿이 무려 24.8%나 오른데 따른 것이다.

〈朝鮮日報 1992. 9. 9〉

**「低公害쌀」 많이 나온다  
올해 벼病蟲害격감 農藥사용 줄어**

올해 벼농사는 농약을 거의 쓰지않아 「저공해쌀」이 대량생산될 전망이다.

이는 UR에 대비, 품질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농약 적게 뿌리기 운동이 전농가에 확산되고 있는데다 올해 병충해 피해가 크게 줄어 농약사용량이 격감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는 장마기간이 짧아 벼재배면적 1백19만ha중 불과 38.7%에 해당하는 46만ha만이 병충해가 발생(지난해 62만3천ha),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열병 41% · 벼멸구 62% 감소**

특히 주요 병충해로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이삭 稻熱病은 1천7백65ha로 지난해 3천30ha보다 41.7%, 벼멸구는 7만5천2백1ha로 지난해 19만5천4백15ha보다 61.5%가 각각 줄어들었다.

紋枯病은 벼의 생육이 너무 좋아 줄기사이에서 통풍이 잘되지않아 생기는 병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24만ha 발병했으나 白葉枯病 縞葉枯病 이화명충 흰등멸구 벼물바구미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예년의 경우 모심기 이후부터 추수할 때까지 13~15회씩 각종 농약을 뿌렸으나 올해는 5~6회에 그쳤고 그나마 농약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지역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농림수산부가 農協을 통해 올해 농가에 공급한 농약은 지난해 70% 수준인 5천5백97 t에 이르고 있으나 농가의 반품이 잇달아 실제사용량은 그 절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짧은 장마등 영향 高品質기대**

이같이 올해 병충해피해가 유례없이 적은 것은 오랜 가뭄으로 습

기가 없어 도열병 발생이 격감했고 中國저기압을 타고 날아오는 벼멸구는 오락가락하는 짧은 장마로 피해를 크게 주지못한데다 큰 태풍과 홍수가 없어 白葉枯病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韓國經濟新聞 1992. 9. 19〉

**쌀 數年内 “자급불안”**

생산량 갈수록 감소  
소비가 더 많아졌다

쌀생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 지난해부터 생산량이 소비량에 못미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쌀自給자체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쌀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기상이변이나 병충해 등에 의한 흉작 때문이 아니라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쌀의 생산감소현상이 구조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88년 한때 4천2백만섬을 넘어섰던 쌀 생산량은 쌀 재배면적 감소와 다수확품종인 통일벼 재배축소등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올해는 3천6백57만섬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올해 쌀소비량은 3천8백12만섬(전년11월~그해 10월말까지 양곡연도기준)으

로 생산량이 소비량 보다 1백55만 섬이나 못미친다. 최근들어 쌀 소비량이 생산량을 능가한 것은 작년부턴로 작년에도 기존재고에서 70여만섬을 충당했다.

**休耕-용도변경 栽培면적 격감**

쌀생산량이 이처럼 크게 줄어드는 것은 농지의 타용도 轉用등으로 논면적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데다 논으로 남아있는 곳에서도 농민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 쌀농사를 기피, 채소를 재배하거나 땅을 늘리는 休耕地가 늘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쌀재배면적은 1백15만6천정보(1정보는 3천평)로 작년(1백20만7천 정보) 보다 5만1천 정보, 4.2%가 줄었다.

한편 소비량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나 지난87년 이후 감소율이 연평균 0.46% 수준으로 생산량 감소에 비해 매우 완만하다.

**在庫 작년이후 2百萬섬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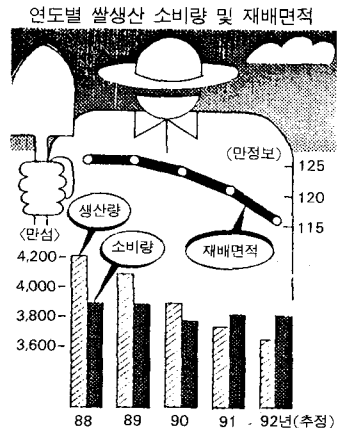
최근 이같은 쌀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81년이후 계속된 풍작으로 쌀재고는 올 10월말기준 적정재고수준(7백만섬내외)의 2배에 이르는 1천4백14만여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10월말의

1천4백87만섬보다 80여만섬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재고쌀중 국민들이 식량용으로 기피하는 통일쌀이 1천여만섬에 이르는 등 전체재고의 70%를 넘는 상태며 일반미는 4백여만섬에 불과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허용하는 한 전용을 허가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면적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장기적으로 「식량자급」 및 「쌀수입불가」방침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면 현행의 적극적인 減産政策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東亞日報 1992. 9. 25〉



註 : 쌀생산량은 당해연도(1~12월)  
소비량은 양곡연도(전년11월~그해10월말)기준